

수몰 역사·예술 공존 '용담호사진문화관'

진안군, 전면 리모델링 후 재개관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들의 애환과 역사를 담은 용담호사진문화관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4일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진안군 정전면 모정리에 위치한 용담호사진문화관은 2013년 개관 이후, 용담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과 주민들의 삶을 기록해 온 공간으로 수몰 이전의 마을 풍경과 주민들의 일상, 공동체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며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역할을 해왔다.

군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관람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4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총 12억 원(기금 7억 6,200만 원, 군비 4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년 간 전면적인 개·보수를 추진했다.

전시관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실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관람 동선을 개선해 방문객 중심의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했으며, 용담호의 수려한 풍광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새롭게 마련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재개관과 함께 선보이는 기념 특별전 「기억 속의 기록」은 「물속의 마을」, 「기억을 기록으로」, 「새로운 기록」을 주제로 잡아, 용담댐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들의 애환과 역사를 담은 용담호사진문화관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4일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건설로 수몰된 6개 면 68개 마을의 풍경과 삶의 흔적을 담은 총 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수몰 이전 마을의 모습과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한 사진과 자료를 통해, 사라진 고향의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을 되새기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기록'으로 박하영 작가의 일러스트 작품을 함께 전시한다. 작가는 수몰의 아픔을 담고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진안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사진이 미처 담지 못한 지금 이 순간의 생동감을 작품에 녹여냈다. 이를 통해 용담호사진문화관은 기억을 보존

하는 공간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기록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확장하게 됐다. 군은 올해를 '진안 방문의 해'로 운영되는 만큼, 용담호사진문화관이 수몰의 역사와 현재를 잇는 문화·관광 거점으로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설 군수는 "물속으로 사라진 마을의 풍경은 우리 군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라며 "용담호사진문화관이 수몰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최북미술관이 아쉽게 준비한 올해 첫 전시, '품의 온도, 서로의 집' 전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품의 온도, 서로의 집' 전시 개최

무주군 최북미술관, 3월 15일까지 3작가 36점 작품 전시

무주군 최북미술관(공립 1종 미술관)이 아쉽게 준비한 올해 첫 전시, '품의 온도, 서로의 집' 전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오는 3월 15일까지 열리는 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한 개인의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구조가 중첩되어 드러나는 '집'에 관한 이야기를 감상할 기회다. 전시회에서는 박지은, 이일순, 이흥규 세 작가가 옷칠화와 서양화, 한국화로 각각 다른 '집'을 선보이며, 총 36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먼저, 박지은 작가는 옷칠화로 '탕에-ress' 시리즈 12점을 선보인다. '꽃'이라는 재료를 현대회화에 적용해 서정적인 감성의

'집'으로 구현했으며, 동양적인 색감의 옷칠재료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함께' 등 이일순 작가가 선보인 8점의 작품 속 '집'들은 초현실주의 화풍을 활용해 익숙한 일상의 사물이 낯설게 느껴지도록 표현했다. 전혀 다른 요소들의 배치를 통해 현실과 꿈 사이를 오가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친숙함에서 이질감을 드러낸다.

이흥규 작가는 시골집이 품고 있던, 아련하고 소중한 기억을 수목담체화로 풀어냈다. '집으로 가는 길' 등 16점의 작품들은 마을 앞 커다란 느티나무와 낮은 담장이 있는 시골집 풍경을 고즈넉하게 담아냈다. /무주=손승기 기자

춘향제 홍보 콘텐츠·아이디어 공모

남원시 청아원,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 3월 2일까지 포스터·홍보 영상 등 4개 부문 접수

남원시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원시 관한루 및 요천변 일대에서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라는 주제로 펼쳐질 예정인 제96회 춘향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차별화된 홍보를 위해 '제96회 춘향제 홍보 콘텐츠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월 2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총 1,0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춘향제전위원회 상이 수여된다.

공모 분야는 △무빙포스터 △포스터 △홍보 영상 △기타 등 총 4개 부문으로, 참가자는 희망하는 1개 분야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고 형식이나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춘향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와 아이디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포스터에 삽입된 QR 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고, 선정된 당선작(총 20팀)은 향후 춘향제 공식 홍보물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채널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며, 대상 1팀에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 1팀에 상금 150만원, 우수상 3팀에 각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남원시 청아원이 최종 선정, 국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해 시비 2,75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117개 문예회관, 121개 프로그램이 신청한 가운데, 총 95개 문예회관이 선정된 경쟁력 있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남원시 청아원은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창작 역량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창작 창극 '만복사, 첫눈에 남은 이야기'로, 남원의 고전 문학 자산인 만복사저포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며, '안숙선명창의 여정' 김미나 관장과 남원시 문화예술과 국악진흥팀이 공연 전반의 기획·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협업형 창작 프로그램으로, 기획 전문성과 콘텐츠 완성도를 동시에 갖춘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번 공연은 청소년·가족 단위 관객을 주요 대상으로 기획되어, 전통 창극의 문턱을 낮추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가족 친화형 국악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 개관

익산시가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문화예술의 거리'를 새롭게 정의할 거점 공간을 선보이며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4일 중앙동 일대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시민과 여행자가 예술을 매개로 교류하는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를 정식 개관했다.

이번에 개관한 여행자 라운지는 기존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로 사용되던 빈 공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단순히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넘어,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과 전시의 기회를, 여행자에게는 익산의 문화적 깊이를 전달하는 '문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관과 동시에 진행되는 기획 전시 또한 기대를 모은다. 제21회부터 제26회까지의 '익산 한국공예대전' 수상작 20점이 전시돼, 공예 특유의 섬세한 미학을 일상 속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22일까지 운영되며, /익산=이재훈 기자



수준 높은 예술 콘텐츠를 통해 라운지의 초기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객 유입을 극대화할 전략이다.

시는 여행자 라운지를 중심으로 중앙동 일대의 문화 자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문화 거점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라운지를 기점으로 △보물하우스 △익산근대역사관 △송림문화극고 등 밀집된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해, 외지 여행자들이 익산의 원도심을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관광 동선을 완성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